

한국의 도서관 환경에서 FRBR 모델의 의미*

Meanings of FRBR Model in Korean Library Circumstance

노 지 현(Jee-Hyun Rho)**

< 목 차 >

- | | |
|-------------------------|----------------------------|
| I. 논의를 시작하며 | IV. FRBR 모델에 관한 현단계 우리의 논의 |
| II. FRBR 모델의 개발 배경과 의의 | 1. 문헌정보학계의 논의 |
| 1. FRBR 모델의 개발 배경 | 2. 도서관 현장의 논의 |
| 2. FRBR 모델의 의의 | V. 모델의 주체적 수용을 위한 우리의 과제 |
| III. 모델의 실행을 둘러싼 현지의 논의 | 2. 문헌정보학계의 과제 |
| 1. 모델 자체의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 | 2. 도서관 현장의 과제 |
| 2. 실행의 과장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 | VI. 논의를 마치며 |

초 록

이 연구는 FRBR 모델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여 우리 도서관계에 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기초 작업이자 FRBR 모델에 대한 우리 학계와 도서관 현장의 심층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발제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 FRBR 모델의 개발 배경과 이 모델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와 기능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2) FRBR 모델의 실행을 둘러싸고 도서관선진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핵심을 검토한 후, (3) 우리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 현장에서 FRBR 모델과 관련하여 진행해왔던 논의의 과정과 실체를 추적해 보면서, (4) 지금까지의 우리의 논의에서 간과되어 온 것이 무엇이며, 향후 FRBR 모델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 논의하였다.

주제어: FRBR,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 목록의 유용성, 자료조직, 정보조직

ABSTRACT

With the rapid and broad changes of information ecology, the environment within which cataloging principles and standards operate has changed dramatically. As a result, IFLA study groups developed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FRBR) model which is a conceptual model for bibliographic universe. This study intends to make a comprehensive inquiry about historical meanings and functional features of FRBR model. To the end, a comprehensive literature survey and analysis was conducted to introduce how hot and serious the discussion on this model in library cataloging. In conclusion, this study made several suggestions on the role of academic and library world for applications of this model in Korea Library circumstance.

Key Words: FRBR,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Library Catalogs, Catalog Function, Information Organization

* 이 논문은 2006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jhrho@pusan.ac.kr)

• 접수일: 2007년 5월 26일 • 최초심사일: 2007년 6월 1일 • 최종심사일: 2007년 6월 22일

I. 논의를 시작하며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은 목록을 통해 도서관의 방대한 자료에 접근하고, 그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간다. 정태적이고 객관적인 상태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는 목록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비로소 도서관이용자의 지식 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동적이고 주관적인 정보소스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도서관목록을 도서관의 정보세계를 향해가기 위한 지도이자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도구라고 말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재의 도서관목록이 이러한 탐색도구로서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서관이용자들은 물론이고 도서관경영자들 나아가 도서관을 연구하는 학자들까지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이용자들이 느끼는 목록의 유용성은 다른 탐색도구들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도서관학자들은 그 이유를 목록을 설계하는데 있어 이용자들의 탐색행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용자들의 변화하는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

이렇듯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어 가던 상황에서, 1998년에 IFLA에서 발표한 FRBR(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은 목록의 유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도서관계 안팎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서지레코드는 어떤 데이터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용자들의 내용적, 물리적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서지 데이터는 어떻게 구조화되어야 하는지 등과 같이 탐색도구로서의 유용성을 염두에 두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되짚어 보았다는 점에서 FRBR의 개발 시도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FRBR 모델은 개체-관계 모델을 기반으로 기존의 평면적인 서지구조를 다양한 개체(entity)와 속성(attribute), 관계(relationship)를 통해 입체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논리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모델에 근거하여 근자에 LC나 OCLC, RLG 등과 같은 기관에서 대규모 서지DB에 적용하기 위한 실험 모델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의 도서관 연구자들과 사서들, 그리고 시스템 개발 벤더들로부터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RBR 모델에 대한 우리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계의 관심이 급속히 고조되

1) 심지어 Borgman 같은 학자는 현재의 온라인목록(OPAC)이 과거 카드목록에서 제공해 주던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목록의 고유한 기능을 도태시켰으며, 카드목록의 구조와 내용에 상용 정보검색시스템의 검색 원리를 대입하여 만든 어정쩡한 형태라는 혹독한 비판을 하기도 한다. Christine L. Bogman, "Why are online catalogs still hard to us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47, No.7(1996), pp.493-503.

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나아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특히, 도서관이용자들은 물론이고 편목사서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도서관목록이 지니는 탐색도구로서의 가치와 편목업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점차 확산되어 오던 시점에서, 기존 목록의 형식과 내용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줄 것으로 기대되는 FRBR 모델의 등장은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FRBR 모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아직 외형적인 ‘학습과 소개’의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선진국에서 새로운 ‘모델’이나 ‘시스템’이 개발될 때마다 늘 그러했듯이 학계에서는 ‘소개’ 형식의 글이나 ‘수용’을 위한 성급함이 어김없이 감지되고 있다. 모델의 개발 배경과 의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모델을 수용하기 위한 우리의 여건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폭넓은 성찰의 노력이 좀처럼 눈에 띄이지 않는다. 이는 우리에게 비해 훨씬 안정적인 도서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미국이나 호주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에서도 IFLA가 제시한 FRBR 모델에 대해 다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근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수용하고, 이어, 단계별로 실행 모델을 개발하여 다양한 도서관 현장에 적용하는 실험 과정을 거치고 있는 현상과 사뭇 대조적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아직은 개념적인 모델에 불과하지만 점차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FRBR 모델에, 서구의 도서관 환경과 시스템에 비해 여러모로 빈약한 우리의 도서관계가 어떻게 접근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 FRBR 모델의 개발 배경과 이 모델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와 기능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2) FRBR 모델의 실행을 둘러싸고 도서관선진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핵심을 검토해 본 후, 이어 (3) 우리문헌정보학과 도서관 현장에서 FRBR 모델과 관련하여 진행해왔던 논의의 과정과 실체를 추적해 보면서, (4) 지금까지의 우리의 논의에서 간과되어 온 것이 무엇이며, 향후 FRBR 모델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련 문헌과 데이터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처럼 이 연구는 FRBR 모델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여 우리 도서관계에 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기초 작업이자 FRBR 모델에 대한 우리 학계와 도서관 현장의 심층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발제’로서의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II. FRBR 모델의 개발 배경과 의의

1. FRBR 모델의 개발 배경

도서관 목록의 ‘본질적 목적’을 규명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은 19세기 중반에 대영박물관도

서관목록규칙을 제안했던 Panizzi로부터 지난 2003년에 IFLA 국제목록전문가회의에서 승인된 '베를린 원칙'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도서관 목록의 본질적 목적을 규명하는 작업은 목록의 기능과 구성요소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편목업무의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따라서 문헌정보의 국제적인 공유와 유통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설립 목적으로 하는 IFLA에서 도서관 목록의 본질적 목적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해 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FRBR 모델의 개발 또한 이러한 일련의 논의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즉, 도서관선진국의 목록전문가들이 모여서 현행 목록체계가 가지는 한계와 문제를 '목록의 본질적 목적'에 입각하여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디지털과 네트워크로 대변되는 시대적 특성에 걸맞은 새로운 목록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FRBR 모델의 개념이 정립되고 윤곽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도서관 목록의 '본질적 목적'에 대한 논의를 역사적으로 주도해 온 것은 Panizzi, Cutter, Lubetzky 등 세 사람이었다. 먼저, Panizzi는 도서관 목록의 본질적 목적은 도서관 서가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 중에서 연관성이 있는 자료를 함께 모아서 제시함으로써(collocating)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효과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고 주장한 최초의 도서관학자였다.²⁾ Panizzi의 이러한 생각은 Cutter에 의해 보다 명확해지고 구체화되었다. Cutter는 '이용자들이 목록을 통해 알고자 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목록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 목적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첫째 이용자가 알고 있는 항목으로 자료에 접근하게 하고(finding objectives), 둘째 동일한 저자, 주제, 장르 등을 함께 모아서 자료를 제시하며(collocating objectives), 셋째 목록이 제시하는 자료 중에서 이용자가 특히 선호하는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choice objectives)이라는 주장을 폈다.³⁾ 20세기 벽두에 제시된 Cutter의 이러한 주장은 이후 도서관계에서 꾸준히 인정을 받으면서 근대적 목록체계를 형성하는데 이론적인 근거가 되었다.

반세기가 넘도록 목록체계의 철학적 기반이 되었던 Cutter의 이론을 뛰어 넘어 '목록의 본질적 목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도서관학자가 Lubetzky였다. 1960년에 Lubetzky는 도서관이 소

2) Panizzi는 목록의 목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Maurice Freedman, "The Functions of the Catalog and the Main Entry as Found in the Work of Panizzi, Jewett, Cutter, and Lubetzky." Diss. of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1983, p.104. William Denton, "FRBR and Fundamental Cataloguing Rules," May 2003. <http://www.miskatonic.org/library/frbr.html>에서 재인용):

1. 한 저자의 저작들을 연결하여 이용자들이 특정 저자의 모든 저작들을 알 수 있어야 한다.
2. 특정 판이나 번역본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특정 저작의 다른 판이나 번역본 등이 서로 혼동스럽지 않아야 한다.
3. 저작의 모든 판 등을 모아 두고 특정 자료를 찾고 있는 이용자들이 그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자료와 더불어 저작의 모든 판 등과 그 자료와 관련 있는 모든 저작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3) Cutter가 제시했던 목록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Cutter 1904):

1. 이미 알고 있는 저자, 표제, 주제로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2. 도서관이 특정 저자나 특정 주제, 특정 유형의 문헌 중 어떤 것을 소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3. 판이나 자료의 특성에 따라 원하는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일반적으로 '도서'라고 불리는 '물리적 매체(carrier)'와 저자의 창작의 결집체인 '저작(intellectual or artistic work)'의 개념은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일련의 자료는 저작, 즉 지적 창작물을 표현한 일종의 대리물(representations)이며, 도서관에서는 하나의 저작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자료나 상이한 판, 각기 다른 저자와 표제를 가진 다수의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목록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개별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저작'에 관한 자료들을 모아 보여 주어야 하며, 그 중에서 이용자가 선호하는 판이나 다양한 번역본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⁴⁾ Lubetzky의 이러한 생각은 이듬해인 1961년에 국제목록원칙회의에서 채택한 '목록의 기능'(functions of catalog)에 반영될 정도로 목록체계의 재정립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⁵⁾

이렇듯 Panizzi-Cutter-Lubetzky로 이어지는 '목록의 본질적 목적'에 대한 철학적 접근과 개념적 정의는 지난 150여 년 간 도서관 목록을 규정하고, 그에 적합한 구성요소를 설계하고, 각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지배적인 이념과 철학으로 작용해 왔다. 각종 목록규칙과 형식이 이에 기초하여 제정 혹은 개정되었으며, 편목업무의 절차와 내용이 이에 기초하여 설계되고 이행되었다. 현재의 시각과 취향에서 돌아보아도 이들의 철학과 관점에는 도서관 목록을 '이용자 중심'의 탐색도구로 만드는데 있어 필요한 핵심적 요소를 거의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탄탄한 철학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도서관 목록이 탐색도구로서의 유용성과 관련하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 까닭은 이들의 철학과 관점이 현재의 목록체계에 완벽하게 구현되지 못해 왔다는 데 있다. 가령, 특정 저자의 모든 저작과 특정 저작에 관한 모든 자료를 연결하고자 한 'collocation' 기능의 경우, 책자형태나 카드형태의 목록에서는 물론이고 OPAC에서조차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물리적인 자료만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저자명이나 표제명 혹은 주제명으로 검색하게끔 하는 기존의 목록 기능에서 벗어나 '저작'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목록에 추가하는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다

4) 이러한 생각 기초하여 Lubetzky는 목록의 본질적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Lubetzky 1960):

1. 특정 저자의 이름이나 표제를 가진 특정 자료(item)를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2. 그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저자와 저작(work)을 밝혀주고, 그 저자의 다양한 저작과 그 저작의 다양한 판이나 번역본 등을 연결하여야 한다.

5) 국제목록원칙회의에서는 이러한 Lubetzky의 의견을 받아들여 목록에 제공해야 할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ICCP 1961):

1. 도서관이 어떠한 자료(book)를 소장하고 있는지를 (a) 저자와 표제에 의해, (b) 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표제에 의해, (c) 저자와 표제의 식별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표제에 해당하는 적당한 대응어로 보여 주어야 한다.
2. 도서관이 (a) 특정 저자의 어떤 저작(work)을, 그리고 (b) 특정 저작의 어떠한 판을 소장하고 있는지를 알려 주어야 한다.

시 제기되기에 이르렀다.⁶⁾ 이에 1990년 8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IFLA 회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회의에 참석한 목록전문가들은 '목록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구체적으로, 1961년의 국제목록원칙회의에서 목록의 목적(기능)을 논의한 지 이미 30년이 경과하였고, 특히 자동화시스템의 도입, 정보매체의 다양화, 그리고 기술적 진보에 따른 이용자 요구의 변화 등과 같은 도서관 내외적 환경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목록을 비롯한 '서지레코드'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표출되었다.⁷⁾ 이러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IFLA가 주관하는 일련의 회의에서 목록전문가를 비롯한 자료조직전문가들이 모여서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바로 Functional Requirement for Bibliographic Record(FRBR)이었다.

FRBR에서는 이용자들이 서지레코드를 탐색하고 이용할 때 수행하는 일반적인 과업(user tasks)을 분석하여 서지레코드가 제공해야 할 네 가지 기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가 진술한 탐색기준에 맞는 모든 자료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하고(to find), 둘째 레코드에 기술된 내용을 통해 이용자가 찾는 개체가 맞는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to identify), 셋째 그 중에서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개체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to select), 마지막으로 원하는 개체를 획득하거나 온라인 접속을 통해 전자적으로 원하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to obtain or to access).⁸⁾ FRBR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지레코드의 주요 기능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목록이라는 용어가 서지레코드로 바뀌고 작업의 주체와 대상 자료가 규모와 유형 면에서 다양해졌다는 점을 제외하면 Panizzi, Cutter, Lubetzky 등이 제시했던 목록의 '철학과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본질적 기능과 크게 차이가 없음을 느끼게 된다.⁹⁾

6) Patrick Wilson, "Interpreting the Second Objective of the Catalog," *Library Quarterly*, 59(1989), pp.339-353.

7) 앞서 살펴본 Panizzi, Cutter, Lubetzky 등은 목록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objectives)'을 중심으로 그들의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1961년 국제목록원칙회의에서는 목록이 제공해야 할 직접적인 '기능(functions)'을 정의하였다. FRBR 모델이 나오는데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이 세미나에서도 '목적'이 아닌 '기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서지레코드'를 중심으로 그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지레코드의 기능'이라 표현하고 있다.

8) IFLA Study Group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 for Bibliographic Records, *Functional Requirement for Bibliographic Records: Final Report* (Munich, Germany : K.G.Saur, 1998), <<http://www.ifla.org/VII/s13/frbr/frbr.pdf>> 김태수 역,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3).

이처럼 FRBR에서는 Cutter나 Lubetzky 등이 사용한 '도서'(book) 혹은 '출판물'(publication)이라는 용어를 모든 유형의 정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체(entity)'라는 용어로 바꾸었으며, Cutter가 '이용자가 알고 있는 저자, 표제, 주제로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던 내용을 '이용자가 진술한 탐색기준에 맞는 모든 자료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9) 가령, 앞서 Panizzi가 언급한 내용(각주 2번 참조)과 비교해 보면, FRBR에 대한 생각이 이들과 얼마나 유사한지 알 수 있다. FRBR에서는 목록(서지레코드)이 제공해야 할 기능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특정 저자의 저작들을 연결하여 이용자가 그 저자의 모든 저작을 알 수 있도록 한다.
2. 특정 저작을 표현하거나(expressions) 구현한 것(manifestations)을 구별하여 이용자들이 혼돈스럽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실제로 구현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저작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집중하는 collocation 기능'에 대한 추구가 FRBR에서 구체화되면서,¹⁰⁾ 이러한 생각과 노력이 기존의 평면적인 구조를 탈피하여 입체적으로 연결된 통합 구조를 갖는 서지레코드를 구현하기 위한 모델의 개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FRBR의 등장이 갖는 의미는 실로 중요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1992년 IFLA 총회를 통해 구성된 FRBR 연구진은 '서지레코드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용자들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지레코드는 어떻게 구조화되어야 하는지'와 같은 보다 실질적인 문제를 분명히 정의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개발할 것을 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통기관들로부터 요청받고, 서지레코드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연결하는데 토대로 사용할 수 있는 보편성 있는 '개념적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근자에 우리 도서관계에도 소개되고 있는 FRBR Model인 것이다.

2. FRBR 모델의 의의

앞서 글의 도입부에서 언급하였듯이, FRBR 모델은 관계형 DB에서 개념 모델을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는 '개체-관계 모델'을 기반으로 기존의 평면적인 서지레코드의 구조를 다양한 개체(entities)와 속성(attributes) 그리고 개체들 간의 관계(relationships)를 통해 입체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보다 논리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체적 구조를 개발하면서 FRBR 연구진은 이용자들이 정보를 찾고자 할 때 일차적으로 원하는 것은 특정 매체나 특정 출판사에서 발행한 물리적인 형식(physical format)이 아니라 개괄적인 내용(abstract content)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¹¹⁾ 따라서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개체와 개체의 속성 그리고 개체 사이의 관계에 따라 커다란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하면,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이용자들은 본인이 찾고자 하는 정보에 보다 손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FRBR 연구진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개념적 모델은 구조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 먼저, 연구진은 <개체>를 3개의 군으로 구분하였는데, 저작(work)과 표현형(expression), 구현형(manifestation), 개별자료(item)로 구성된 제1집단, 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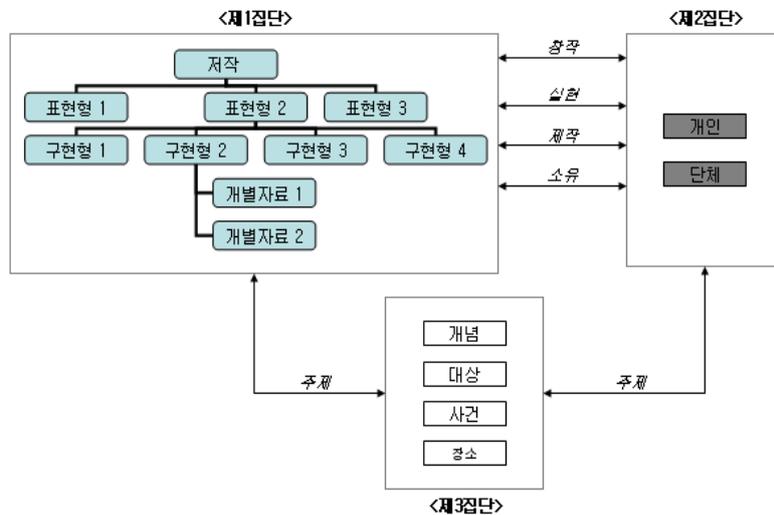
3. 모든 저작과 그들의 표현물, 구현물을 모아두고 그 중에 하나를 찾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다른 모든 관련 자료들과 그 저작과 관련된 다른 저작들을 볼 수 있도록 한다.

10) Barbara Tillett, "What is FRBR?: a Conceptual Model for the Bibliographic Universe," *Library of Congress*, 2004, p.5. (<http://www.loc.gov/cds/downloads/FRBR.pdf>)

11) 가령, "햄릿"이라는 자료를 찾는 사람이 표제가 "햄릿"이든지 "셰익스피어의 불후의 명작" 혹은 "4대 비극"이든지 상관없이 "햄릿"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저작)를 찾고 있으며, 원전과 이에 대한 번역본, 개정판, 요약판 등과 같은 내용적 변이나 인쇄자료, PDF, Tiff, html, 마이크로필름 등과 같은 특정 매체로 된 자료 중에서 본인이 보다 선호하는 자료를 선택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짙다는 행태적 특성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햄릿"이라는 작품을 쓴 작가의 다른 작품이나 "햄릿"을 번역하거나 제작한 사람이나 단체의 다른 작품, 그리고 이와 유사한 주제를 가진 또 다른 작품 등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한 신물의 지적, 예술적 책임을 지거나 혹은 물리적 제작, 배포, 관리의 책임을 지닌 개인(person)과 단체(corporate body)로 구성된 제2집단, 주제에 해당하는 개념(concept)과 대상(object), 사건(event), 장소(place)와 같은 부차적 개체로 구성된 제3집단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이용자들이 이들 개체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거나 탐색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 개체들 모두는 개개의 고유한 <속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속성은 제1집단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서지레코드에 수록된 정보를, 제2집단과 제3집단의 경우에는 서지레코드에서 접근점(access points)으로 표현되거나 전거레코드에 반영된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1집단에 속하는 개체 간, 제1집단과 제2집단의 개체 간, 제1집단과 제3집단의 개체 간의 주요 <관계>를 표현함으로써 자료들 간의 서지관계를 적절히 반영하도록 구조화하였다.

한편 FRBR 모델에서 서지레코드는 제1집단에 의해 4개의 계층으로 구분된다. 가령, 지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독창성을 지닌 '저작'이 가장 상위개념에 속하며, 이러한 저작 하나하나는 텍스트나 음향, 이미지, 움직임 등과 같은 '표현형'으로 구분되며, 표현형은 다시 도서, 연속간행물, 녹음자료, 필름, 비디오녹화자료 등과 같은 '구현형'에 따라 나누어진다.¹²⁾ 이러한 제1집단의 각 개체들은 다시 창작, 제작, 실현, 소유하는 관계에 의해 제2집단(개인이나 단체)과 연결되어 있으며, 개념, 대상, 사건, 장소와 같은 주제 속성에 의해 제3집단과도 연결되어 있다(그림 1 참조). 이처럼 FRBR



<그림 1> FRBR의 개념 모형

12) 가령, 앞서 예를 든 “웹릿”을 하나의 저작이라 볼 때, 이 저작은 원작에 대한 다양한 번역본, e-book, 녹음자료, 웹문서 등과 같은 표현형을 가질 수 있다. 표현형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번역본은 이를 출판한 출판사 A, B, C 등에 의해 제작된 각기 다른 표제를 가진 구현형을 가질 수 있으며, 특정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구현형 중의 하나인 ‘개별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모델은 하나의 '저작' 아래에 관련 자료들을 여러 속성에 따라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은 원하는 자료를 포괄적으로 탐색할 수 있고, 편목작업자들은 상위개체에 속한 데이터를 하위개체에 그대로 이어받음으로써 편목비용 및 편목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적 구조를 갖는 FRBR 모델은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기존의 평면적인 구조의 서지레코드가 구현하지 못하는 서지레코드들 사이의 서지적 관계를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서, 동일한 내용을 가진 자료가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 오늘날의 정보환경에 적합한 혁신적인 모델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지레코드의 구성요소와 각각의 구성요소가 갖는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이들이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론적 모델'로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¹³⁾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FRBR 모델이 서지 세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고 서지레코드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¹⁴⁾ 이것은 FRBR 모델이 개념적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다양한 변수를 가진 현실의 서지 세계에서 실행하거나 구현하고자 할 때에는 여러 장애와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 비롯되고 있다.

Ⅲ. 모델의 실행을 둘러싼 현지의 논의

FRBR 모델을 현실의 서지세계에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우려는 단순한 우려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1998년에 FRBR 모델이 모습을 드러낸 이후 각국의 도서관들은 이 모델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제요소를 도출하여 그들의 목록규칙에 반영하거나, 기존의 MARC 레코드를 FRBR 모델로 변환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시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¹⁵⁾ 또한,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도서관상용시스템 개발 벤더들은 FRBR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편목시스템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¹⁶⁾ 각종 서지유틸리티에서는 FRBR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탐색도구를 만들어서 하나둘씩 선을 보이고 있다.¹⁷⁾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FRBR 모델이 개념 모델이다 보니 이를 실제 서지세계에 적용하여 관련 시스템이나 규칙을

13) Patric Le Boeuf, "FRBR and Further,"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32, No.4(2001), pp.15-47.

14) Allyson Carlyle, "Understanding FRBR as a conceptual model: FRBR and the bibliographic universe,"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50, No.4(2006), p.267

15) LC의 FRBR display Tool과 OCLC의 Work-set Algorithm.

16) 미국 VTLS사의 Virtua, 덴마크 Portia사의 VisualCat 등.

17) 호주국립도서관과 8개 대학도서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축한 AustLit, OCLC의 Worldcat에 수록되어 있는 소설을 대상으로 한 FictionFinder, 미국 Rochester 대학에서 영화와 음악자료를 대상으로 구현한 Voyager 목록, RLG에서 학부생들의 OPAC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만든 RedLightGreen 등.

개발하고자 할 때, 특히 모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실무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실행 모델을 개발하고자 할 때, 선도적인 입장에 있는 여러 주체들이 시행착오를 겪거나 난관에 봉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¹⁸⁾ 그렇다면 FRBR 모델의 실행에 있어 선도적인 입장에 있는 주체들은 FRBR 모델 자체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이 모델의 실행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전망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모델 자체의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

FRBR 모델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시도해온 논문들에 의하면, FRBR 모델은 ‘실행 모델’로 발전시키는데 있어 여러 면에서 한계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령, 현재 FRBR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1집단의 개체들은 각 개체에 대한 정의는 물론이고 개체들 사이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여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자 할 때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는 물리적인 대상을 가지고 있는 ‘구현형’과 ‘개별 자료’에 있어서 보다 추상적인 개념이면서 사람의 직관에 의존해야 하는 ‘저작’과 ‘표현형’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FRBR 모델에서 말하는 저작은 특정한 유형을 지닌 대상이 아니라 지적 혹은 예술적으로 독창성을 지닌 창작물이다. 가령, “햄릿”을 하나의 저작이라고 할 때, 저작은 이 작품의 특정 구절이나 특정 텍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창작물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러다보니 희곡 “햄릿”과 영화 “햄릿”을 하나의 저작에 속하는 상이한 표현형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화 “햄릿”의 경우 희곡 “햄릿”을 토대로 새로운 창작이 가해졌으므로 완전히 새로운 저작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FRBR 모델에서는 “각 개체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규정하기 어렵고”, “각 개체에 대한 견해는 문화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다양한 문화권과 국가 차원에서 제정한 목록규칙에서 이들의 경계를 정한다”는 식으로 이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¹⁹⁾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FRBR 모델의 실행에 있어 선도적인 입장에 있는 국가들에서는 국가도서관들이 중심이 되어 목록규칙과 목록형식의 전면적인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FRBR 모델을 실행한다하더라도 서지데이터의 작성과 관리는 여전히 목록규칙과 형식에 의해 영향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시도들이 대부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저작’과 ‘표현형’과 관련하여 목록규칙과 형식을 개정하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⁰⁾ 이와 관련한 전형적인 사례는 FRBR 모델의 실행을 위해 AACR 개

18) 최종보고서에서도 FRBR 모델은 실행 모델이나 데이터 모델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상세히 분석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향후 이 모델에 대한 확장된 수준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19) IFLA, *op. cit.*, p.21. 이것은 FRBR 모델이 실행 모델이나 구체적인 지침이 아니라 복잡한 서지구조를 단순화하여 추상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는 이론적 모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다.

정작업을 추진 중인 JSC(The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Revision of AACR)의 경험이 보여 준다. JSC에서는 추진 중인 목록규칙과 형식의 개정작업에 실험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물리적인 자료(FRBR 모델에서 '구현형')를 편목사서들에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표현형'을 식별하도록 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²¹⁾ 실험 결과, 실험에 참가한 대부분의 편목사서들이 '표현형'을 제대로 식별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구현형'을 기준으로 하여 상위 개체인 '저작'이나 '표현형'을 판별해 내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극히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결국 이러한 실험 결과에 의거하여, JSC에서는 FRBR 모델을 실행하기에 앞서 모델에서 제시한 각 개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실무지침이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개체를 대표하는 개념을 어떻게 표현(디스플레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FRBR 모델을 실제 서지세계에 실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²²⁾ 앞서 언급하였듯이, FRBR 모델에서는 이용자가 계층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개체의 속성을 명시적으로 식별하게 할 수 있는 '통제어휘(controlled vocabulary)'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다양한 '구현형'이 동일한 '표현형'에 속하고 다양한 '표현형'이 동일한 '저작'에 속하게 되는 상황에서 동일한 표현형이나 동일한 저작임을 나타내기 위한 일관된 방식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FRBR 모델에서 강조하는 collocation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령, FRBR 모델에서 "햄릿"을 검색하면 '저작 18건, 표현형 49건, 구현형 238건'과 같이 동일한 개체에 속한 자료들을 함께 묶어서 계층적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이용자들로 하여금 각 계층에 속한 개체를 정확히 식별하게 하고 그 중에서 원하는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동일한 계층에 속하는 개체들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를 명시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²³⁾

20) Jannifer Bowen, "FRBR coming soon to your library?"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49, No.3(July 2005), pp.175-188. ; Allyson Carlyle, "User perspectives of works," *ASIS Annual Conference*, Oct. 22, 2003. <<http://dlist.sir.arizona.edu/272/01/CarlyleWorksandUsers.pdf>>

21)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Revision of AACR, Format Variation Working Group, Interim Report #1(Oct. 8, 2001), <<http://www.collectionscanada.ca/jsc/docs/forvarwg3.pdf>> JSC는 실험에 참가한 편목사서들에게 하나의 표현형으로 간주될 수 있는 다수의 자료들(구현형)을 제시하고, 이들 자료로부터 표현형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 결과를 목록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그러나 표제 변동이나 내용 변이 등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실험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표현형을 '대표'하는 데이터로 채택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다.

22) Jannifer Bowen, *op. cit.*, ; Allyson Carlyle, *op. cit.* ; William Denton, "FRBR and Fundamental Cataloguing Rules," May 2003. <http://www.miskatonic.org/library/frbr.html>

23) 가령, "햄릿"을 저작으로 할 때 이에 관한 표현형들은 '한글번역본 햄릿'과 '햄릿 요약판', '중고등학생을 위한 햄릿'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때, 다수의 구현형을 가진 각각의 표현형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 Hamlet, Shakespeare, William, 1564-1616

→ 표현형 1: Hamlet, Korean Translation.(저작 햄릿에 대한 한글번역본)

→ 표현형 2: Hamlet, Abridgeged ed.(저작 햄릿에 대한 요약판)

→ 구현형 1: Champaign, Ill. : Gutenberg, 1990(요약판(표현형)에 해당하는 특정 출판물)

→ 구현형 2: London : Shakespeare Association, 1951(")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제1집단의 개체들은 기존의 '통일표제'를 이용하고, 제2집단과 제3집단의 개체들은 '전거통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여러 주체들에 의해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가령, JSC에서는 AACR2에 있는 통일표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제1집단의 개체들을 표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건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통일표제에 관한 규칙(AACR2의 Chapter 25, Uniform Title)을 '저작'을 식별하기 위한 통일표제로 활용하고, 다시 이를 활용하여 '표현형'을 식별하기 위한 통일표제 규칙을 추가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²⁴⁾ 또한 이와는 별도로 FRBR 연구진은 제2집단과 제3집단에 속하는 개체들에 활용하기 위해 '전거번호와 전거레코드의 기능 요건'(FRANAR: Functional Requirements of Authority Numbering and Records)이라는 새로운 모델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FRBR 모델은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개체들을 "어떠한 형식에 따라 일관되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한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모델의 실행과 관련한 범용성을 높이기 위해 극복해야 할 다양한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는 상태이다.

2. 실행의 파장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

지금까지 언급한 FRBR 모델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에 더해, FRBR 모델의 실행이 편목업무의 절차와 방식에 미치게 될 파장에 대한 우려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의 편목업무 방식에서는 도서관에 입수된 물리적인 자료를 대상으로 그 자료에 대한 개별 레코드(FRBR 모델에서 '구현형'에 해당하는 레코드)를 생성해 낸다. 이에 비해 FRBR 모델에서는 도서관에 물리적인 자료가 입수되더라도 해당 자료 자체가 아니라 그 자료의 근원이 되는 '저작'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표현형', '구현형'에 해당하는 레코드를 이어서 생성하여야 한다(즉, 논리적 순서에 따라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부터 구체적인 실체로 편목작업을 해 나가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방식은 기존의 방식과 상이하여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저작이나 동일한 표현형에 속하는 새로운 구현형의 자료가 입수될 때마다 저작이나 표현형의 데이터를 수시로 수정해야 하는 등 편목사서의 업무 부담이 과도해 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에 현장의 편목사서들은 FRBR 모델의 성급하고 졸속적인 실행이 가져올 편목업무의 혼란과 과중에 대해 우려하면서 대안의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우려에 대해 JSC에서는 기존의 편목업무 방식을 고수하되 저작과 표현형 개체는 편목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가 아니라 별도의 기계적인 작업을 통해 생성하게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현재의 방식대로 도서관에서는 구현형에 해당하는 레코드를 생성하되, 이를 동일한 저작이나 동일한 표현형에 따라 '기계적으로' 모으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24) JSC, *op. cit.*

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²⁵⁾ 나아가서 JSC에서는 ‘모든’ 도서관에서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FRBR 모델을 적용하는 것보다, 그룹화 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일부’ 자료만을 대상으로 동일한 저작 혹은 동일한 표현형으로 함께 묶어 grouping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모든 자료가 서지적으로 관련 있는 다른 자료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FRBR 모델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모든 레코드가 이러한 방식으로 재배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JSC의 권고를 받아들여 LC나 OCLC에서는 편목업무 과정에서 ‘저작’이나 ‘표현형’ 레코드를 직접 생성하는 방법보다 이미 작성된 구현형 레코드를 대상으로 자동으로 저작과 표현형 개체를 클러스터 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FRBR 모델에서 제시한 내용을 실제 편목시스템에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더라도, 이 모델이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 또한 다각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해 온 것처럼 FRBR 모델은 동일한 내용을 가진 자료들이 다양한 표현형이나 구현형으로 구분되면, 그러한 계층적인 구조를 통해서 이용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자료를 손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하나의 저작이 다수의 표현형이나 구현형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 모델의 실행은 오히려 현재의 서지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부작용’으로 결과할 수 있다. 가령, 최근의 OCLC의 조사에 의하면 ²⁶⁾ OCLC의 Worldcat을 구성하는 4천7백만 서지레코드 중에서 저작으로 구분될 수 있는 서지레코드는 3천2백만 레코드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통계는 하나의 저작이 평균 1.5개의 구현형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²⁷⁾ 同 조사 결과는 또한, 불과 1%에 불과한 47만 서지레코드만이 7개 이상의 구현형을 가지며, 이 중에서 3만 개의 서지레코드만이 20개 이상의 구현형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OCLC와 같은 대규모 서지DB 보유 기관에서조차 서지DB를 구성하는 자료 중에서 극히 일부 자료만이 FRBR 모델의 적용으로 인해 긍정적인 과급효과를 얻게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규모가 훨씬 작은 도서관들에서 ‘복잡한 구조로 얽혀있는 이 모델’의 실행으로 얻게 되는 이득이 이 모델의 실행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FRBR 모델은 이용자들이 서지레코드를 통해 원하는 정보에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보다 효율적인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모델이 발표된 이후 도서관선진국의 목록전문가들로부터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²⁸⁾ 그러나 현단계 FRBR 모델을 실제 서지

25) Jeniffer Bowen, *op. cit.*, p.177.

26) Rick Bennett, Brian F. Lavoie, & Edward T. O'Neill, "The Concept of a Work in WorldCat: an Application of FRBR," *Library Collections, Acquisitions & Technical Services*, Vol.27, No.1(spring 2003), pp.45-59.

27) 현재의 서지레코드들은 FRBR 모델에 따르면 하나의 ‘구현형’에 해당된다.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하나의 자료에 하나의 서지레코드를 만드는 것은 제1집단의 개체 중 ‘구현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28) Beall은 다음의 글에서 이러한 현상을 ‘부당한 열광’(unwarranted enthusiasm)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Jeffrey Beall, "Some Reservations about FRBR," *Library Hi Tech News*, Vol.23, No.2(2006), pp.15-16.

세계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FRBR 모델은 데이터를 기술하고 레코드를 구조화하기 위한 표준이 아니라 개념적인 수준에서 제안된 하나의 모델이며, 모델 자체만을 놓고 볼 때 아직까지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혼돈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FRBR 모델이 기반하고 있는 논리적 프레임과 실제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편목업무의 철학과 방식 사이에는 다양한 괴리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며, 따라서 특정 국가에서 이 모델의 수용과 실행을 고려한다면, 해당 국가의 문화적 환경과 서지적 전통의 기초 위에서 준비하고 논의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닌 것이다.

IV. FRBR 모델에 관한 현단계 우리의 논의

1. 문헌정보학계의 논의

우리 문헌정보학계에서 FRBR 모델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2003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FRBR 최종보고서를 번안 출간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FRBR 모델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 과정을 통해 주요 서지기관들과 도서관선진국의 국가도서관들이 기존의 목록규칙이나 목록형식에 FRBR의 개념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적 활동을 시작한 무렵이었다. 특히, JSC에서 FRBR 모델의 개념을 AACR 3판(RDA)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은 AACR의 개정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국내의 자료조직 관련 학자들과 도서관 실무진에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왔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FRBR 모델의 내용을 이해하고 FRBR 모델이 향후 우리의 목록체계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FRBR 최종보고서가 번안되어 유통된 이후 지금까지 약 4년 동안 우리 문헌정보학계에서는 10여편 가량의 FRBR 관련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지금부터 이들 연구물에 기초하여 FRBR 모델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관점과 관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FRBR 모델에 관해 발표된 국내 연구물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한편에서는 FRBR 모델이나 FRBR 관련 국제 연구동향을 평면적으로 소개하는 연구가, 다른 한편에서는 해외의 사례를 참조하면서 FRBR 모델을 적용하여 가상 시스템을 구현하고 활용성을 검증해 보는 형태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소개 형식의 연구물로는 2003년에 발표된 이성숙의 논문이 최초인데, 그녀는 FRBR을 소개하면서 “목록의 전통적 기능 중에서 관련 자료를 한자리에 집중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참조모델”의 측면을 특히 강조하였다.²⁹⁾ 다음 해인 2004년에 김정현은 “FRBR에서 제시한 저작의 개념을 검토한 후 현재 사용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29) 이성숙, “IFLA의 서지레코드 기능요건(FRBR) 모형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2호(2003. 6), pp.319-342.

있는 국제표준번호들 가운데 이 개념에 가장 근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³⁰⁾ 이어 2005년에 조재인은 “당시까지의 FRBR 모델의 구현 사례와 FRBR 모델의 개념 수용을 위한 AACR의 개정 방향”을 소개하는 글을 발표하였으며,³¹⁾ 이성숙은 해외에서 FRBR 모델을 적용한 사례와 그들의 적용 전략을 소개하는 글³²⁾을 발표하였다.

한편, FRBR 모델을 특정 사례에 적용해 보고 활용성을 평가하는 유형의 사례연구로는 먼저, 2004년에 발표된 조재인의 논문이 눈에 띈다.³³⁾ 그녀는 MARC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FRBRize 하기 위해 LC와 OCLC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을 국내에서 구축한 KORMARC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해 보는 실험연구를 통해, 전거통제 과정 없이 관련 자료가 분산되어 있는 우리 목록에서 이들 자료를 기계적인 방법만으로 클러스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리의 경우 정교한 알고리즘의 개발과 동시에 전문가의 육안 식별에 절대적인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어, 2005년에 발표된 이성숙의 연구에서는 한국문학작품을 자신이 ‘수정하여 개발한’ FRBR 모델에 적용하여 그 활용성을 검토해보는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³⁴⁾ 이 연구에서 그녀는 기본표목과 통일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우리 목록의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 개념을 FRBR 모델에서 배제하는 대신에 관련 저작의 연결 장치로서 ISTC를 도입하여 FRBR 모델에서 제시한 저작과 표현형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형태로 FRBR 모델을 수정 한 후 활용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그녀는 수정 모델이 “관련 자료 간의 서지적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하고, 지금까지 불완전하게 지원되었던 목록의 집중기능을 향상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2006년부터는 특정 자료를 대상으로 FRBR 모델을 구현한 후 시스템의 성능을 직접 평가한 연구물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가령, 김소형은 FRBR 모델을 활용하여 웹기반 영화정보 목록시스템을 구현하고 이를 평가하는 연구를 시도하였으며,³⁵⁾ 정진규는 방송영상자료를 FRBR 모델에 따라 다계층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이 시스템이 가지는 검색의 효율성과 시스템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³⁶⁾ 이들 연구에서는 단선적인 구조와 키워드 일치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FRBR 모델을 활용하여 개발한 이들 시스템이 계층구조와 연관관계 정보를 통해 한 저작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한꺼번에 제시함으로써 검색의 성능은 물론이고

30) 김정현, “FRBR에 의한 국제표준번호들의 저작개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1호(2004. 3), pp.215-235.

31) 조재인, “표현형 계층을 중심으로 한 FRBR 모형 분석 및 목록 체계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2호(2005. 6), pp.221-239.

32) 이성숙, “FRBR 모형의 적용 전략에 관한 연구: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3호(2006. 9), pp.305-331.

33) 조재인, “FRBR 알고리즘 분석 및 KORMARC 데이터베이스 적용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2004. 9), pp.5-21.

34) 이성숙, 김태수, “FRBR 모형의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2005. 3), pp.195-220.

35) 김소형, 영화정보를 위한 FRBR 모형 메타데이터 시스템 구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 2006.

36) 정진규, “방송영상자료의 FRBR기반 서지구조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07. 3), pp.185-214.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소 성격은 다르지만 FRBR 모델을 적용하여 구축된 해외의 대표적인 시스템들(AustLit, FictionFinder, RedLightGreen, IFPA, Voyager)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페이스 평가'를 시도한 서은경의 연구³⁷⁾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외에도 2007년에 들어서는 이유정이 "MARC 레코드로부터 FRBR 모델의 각 개체를 자동으로 생성하고자 할 때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석한 논문³⁸⁾을 발표하는 등, 비록 연구자의 수나 연구의 폭과 깊이에 있어 아직 미미하지만, 조금씩이나마 FRBR 모델에 대한 국내 연구진의 관심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연구물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모든 연구물이 공통적으로 "FRBR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FRBR이 이미 전 세계 목록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서지레코드에 적용될 경우 매우 유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 목록을 이 모델로 변환하고 통합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는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³⁹⁾ 이처럼 FRBR에 대한 현단계 우리 학계의 논의는 FRBR 모델을 현재의 서지레코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유용한 틀로 인식하면서, 이 모델을 우리의 목록체계에 수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자 차원에서 나름대로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도서관 현장의 논의

FRBR 모델을 국내 도서관계에 소개하는 작업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였지만, 그 이후에 우리 도서관 현장에서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움직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도서관 현장에서 이루어진 FRBR 모델에 관한 최초의 공개적인 움직임은 아마도 지난 2005년 10월에 『21세기의 목록과 국가서지정보정책』이라는 주제로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관계자가 "향후 우리나라도 FRBR에 부응하는 새로운 구조로 목록을 디스플레이할 시범사업에 착수할 것"⁴⁰⁾이라는 계획을 밝힌 것이 유일해 보인다. 당시 심포지엄에 참가한 영미권, 중국, 일본의 국가도서관들이 향후 목록규칙의 개정과정에 FRBR의 개념을

37) 서은경, "FRBR 모형에 기반한 서지정보 인터페이스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3권, 제4호(2006. 12), pp.317-339.

38) 이유정, "FRBR 실행을 위한 MARC 레코드 생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2007. 3), pp.299-314.

39) 그런 가운데 일부 연구에서는 우리의 목록 환경과 관련하여 "기존의 서지레코드에 수록된 데이터가 정확하고 완전한지"에 대해 염려하고, "채택 표목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전거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는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한 현실"을 우려하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FRBR 모델의 적용이 우리 도서관 현장에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40)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60주년기념 국제심포지엄, 『21세기의 목록과 국가서지정보정책』, 국립중앙도서관, 2005, p.280.

수용하거나 FRBR 모델에 기반한 차세대 OPAC을 개발할 계획이 있다는 발표에 이어 나온 우리나라 국가도서관의 계획이었다.

당시 발표로 우리의 국가서지레코드에도 앞으로 FRBR 모델이 적용될 것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계획의 발표가 FRBR에 대한 도서관 현장의 관심과 논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지 못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계획이 발표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단위도서관이나 도서관협의회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도서관상용시스템 개발 벤더 중에서도 FRBR 모델에 기반한 시스템의 구현에 관심을 보인 곳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단지, 최근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식정보표준화도구개발 위원회에서 '국가서지레코드의 FRBR 구현'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고 위원회 중심의 내부 논의를 몇 차례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외는 별도로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운영전략에 기존 KORMARC 데이터를 FRBRize 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개발과 OCLC의 FrictionFinder를 벤치마킹할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통해, 조만간 우리 도서관계에도 FRBR의 실현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시작될 거라는 짐작만 가능할 뿐이다.

V. 모델의 주체적 수용을 위한 우리의 과제

1. 문헌정보학계의 과제

도서관선진국에서 문헌정보학계의 연구동향은 항상 도서관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맞물려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FRBR 모델의 개발 역시 이러한 점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도서관 현장의 요구가 학계로 이어지고, 장장 8년여의 논의가 진행된 끝에 개발된 것이 FRBR 모델이었다. 여기서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FRBR 모델을 세상에 공개하면서 연구진이 밝힌 내용이다. 그들은 모델의 발표가 연구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모델 자체가 수정되고 보완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8년여의 논의도 부족한지 여전히 후속 논의의 과정을 공개적으로 남겨두고 있다. 논의의 과정을 중요시 하는 그들의 행태는 FRBR 모델을 개발하는 중간 과정에서 그들이 생산해낸 연구물의 내용에서도 나타난다. 그들의 관심은 '목록의 본질적 목적 혹은 기능'에 대해 학계와 현장의 공감대를 끌어내는데 주어져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과연 목록이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용자들은 목록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에 관해 그들의 선학들과 선배들이 수십 년 동안 진행해온 논의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 단순히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결과를 끌어낸 과정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41) 가령, Carlyle은 FRBR 모델에서 제시한 '저작'의 개념은 1936년 Pettee가 제안한 'literary unit'에 뿌리를 두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학계에서는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착하는 행태가 너무도 질게 퍼져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와는 환경이 다른 선진 도서관문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FRBR 모델의 ‘수용’에 대해 논하면서도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근본적인 이슈(가령, 우리에게 목록은 무엇인가? 혹은 우리 도서관의 목록체계는 건강한가?)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은 대부분 생략하고 있다. FRBR 모델을 만들어낸 사회의 철학과 가치 그리고 행태가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건너뛰고 모델의 외형적 구조와 내용을 소개하고 그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우리의 시스템에 서둘러 대입해 보는 식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물론 일부에서 FRBR 모델을 우리 상황에서 실험적으로 구현해 보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실제 우리의 서지레코드에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들 연구도 FRBR 개체를 임의로 수정하여 적용하거나 소규모의 서지레코드를 대상으로 하여 직접 육안으로 서지레코드의 특성을 일일이 분석한 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FRBR 모델을 실행하고자 하는 국가의 연구자들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갖는 FRBR 개념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나 FRBR 모델을 실제 도서관에서 적용하고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를 우리 학계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저작이나 표현형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모호성으로 인해 실제 서지세계에 FRBR 모델을 적용하고자 할 때 많은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수준의 주장이나 “기본표목과 통일표제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우리 목록에서 FRBR 모델의 적용은 다소 까다로운 수용 작업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정도의 예측은 있지만, 그 이상의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FRBR 모델의 본격적인 수용에 앞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전조사적인 성격의 연구, 가령, 우리 이용자 측면에서 FRBR 모델의 효과를 분석하거나 우리 도서관의 관리자 측면에서 제기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FRBR 모델의 수용이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면 지금이라도 우리 학계가 반드시 거치고 넘어가야할 과정은 우리의 목록체계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이다.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의 것’을 철저히 점검하고 난 후에 ‘남의 것’을 어떻게 받아 들이기에 대해 논의하는 이야기이다. 앞서 여러 번 언급하였지만, FRBR 모델은 실행을 위한 표준이나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세부지침을 자국 고유의 토착적인 목록체계와 업무관행에 근거하여 마련해 나가야 한다. 당연히 관련 학계와 도서관 현장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하며, 특히 도서관 현장의 실무진의 견해를 폭넓게 청취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가능한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목록과 목록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철저

있으며, 그 외 ‘edition’, ‘publication’ 등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거쳐 현재와 같이 4개의 개체로 이루어진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한다.(Carlyle, *op. cit.*, p.267)

하게 세상에 드러내 보이고, 그에 기초하여 FRBR 모델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진단이 내려지면 아마도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치유 작업은 우리 목록(서지레코드)의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FRBR 모델은 국제적 합의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지금까지 목록이 추구해 온 탐색과 집중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목록과 다른 메타데이터를 연계하는데 통로가 될 수 있으며, 복잡한 서지적 관계를 처리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장점⁴²⁾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FRBR 모델이 우리 도서관 환경에서도 반드시 효과적일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FRBR 모델의 논리적 타당성을 우리의 시각에서 검증하는 작업이 ‘수용의 추진을 위한 작업’에 앞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FRBR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작’과 ‘표현형’은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논의를 오랫동안 진행해온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낯설고 이질적인 것이 아니겠지만”,⁴³⁾ 이에 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다. 특히, 기본표목과 통일표제의 개념조차 규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목록규칙과 전거통계 기법을 거의 적용하고 있지 않는 우리 도서관의 현실을 감안하면, FRBR 모델은 우리에게 ‘반쪽짜리 백지수표’에 불과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모델을 우리 도서관 환경에 적용할 때 나타나게 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우리 학계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도 FRBR 모델의 수용을 모색하는 것이 ‘그래도 바람직하다’는 합의에 도달한다면, FRBR 모델의 체계적 수용을 위한 단계별 추진모형을 마련하는 작업 또한 우리 학계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추진모형에는 구체적으로 FRBR 모델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제요소를 목록규칙이나 KORMARC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은 물론이고, 기존의 KORMARC 레코드를 FRBR 모델로 통합하기 위한 세부적 방안 또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실행 모델의 개발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수립하고 실행 모델의 개발 주체와 일정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실행 모델이 개발된 이후에는 도서관 현장에 적용을 위한 다양한 실험 과정이 따라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작업은 연구자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학계의 중지를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연구위원회 등)에 기반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계속해 나갈 때에 비로소 FRBR을 우리의 목록체계에 성공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2. 도서관 현장의 과제

FRBR의 수용과 관련하여 학계의 책임과 의무가 모델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42) 이성숙, “FRBR 모형의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2005. 3), p.200.

43) Carlyle, *op. cit.*, p.268

규명하는데 있다면, 도서관 현장의 과제는 이를 현재의 서지레코드에 반영하기 위한 실무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첫 번째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 현재의 우리 목록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결함을 제거하고 품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FRBR 모델은 현재의 체제를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모델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루어진 체제와 내용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탐색도구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현재 서지레코드에 수록되어 있는 데이터가 너무 빈약하거나 데이터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이 모델의 실행은 아예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⁴⁴⁾ 특히, JSC에서 건의한대로 기계적인 작업을 통해 FRBRize 하고자 한다면 데이터의 품질검증과 전거통제 작업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FRBR 모델을 구현하더라도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데이터의 결합체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이용자들은 이로 인해 더 많은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도서관 현장에서 FRBR의 수용과 관련하여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FRBR을 실행하기 위한 ‘기반조성’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FRBR과 같이 목록의 유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우리 도서관 현장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FRBR에 관한 우리 도서관 현장의 관심은 지금까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FRBR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학계뿐 아니라 편목사서들을 중심으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따라서 단순히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리스트를 생산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도서관이용자가 지식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막연함과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탐색도구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에 서서, 현단계 목록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미국 Rochester 대학도서관의 사서들이 FRBR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와 시스템 벤더들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목록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시스템 구현을 통해 FRBR의 효과와 가치를 직접 체험하여 발표하였던 사례는 향후 도서관 현장에서 FRBR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훌륭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⁴⁵⁾ 우리 도서관 현장에서도 FRBR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진다면, 이론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실무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FRBR의 실행과 관련하여 도서관 현장에서는 ‘실무위원회’를 조직하여 이와 관련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실무위원회는 FRBR에 관한 정책 집행이 보다 체계적으

44)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 및 몇 개 대학도서관만이 겨우 전거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조차도 이름/표제 전거 및 주제명 전거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45) Jennifer Bowen, "FRBR: Coming soon to your library?"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49, No.3(July 2005), pp.175-188. ; Jennifer Bowen, "Navigating through Voyager: should FRBR be in our future?" <http://www.library.rochester.edu/IN/REF/attachments/MAVUG-files/frame.htm>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FRBR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그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의 전반적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KERIS가 종합목록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방관자적 입장에 서있던 단위 도서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도서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로까지 활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FRBR 모델의 수용 과정에서도 이러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서관 현장에서는 강력한 목소리를 표출하고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결집하여야 한다. FRBR 모델의 수용은 결국 편목업무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편목사서의 위상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동인이 되기 때문이다.

VI. 논의를 마치며

FRBR 모델은 목록이 추구하는 본질적 목적에 보다 충실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개발된 것이다. 이 모델의 이면에는 목록의 본질적 목적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보다 원활하게 탐색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탐색 행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자료들을 서로 연계하여 제시하고 (collocating) 나아가 이들을 뚜렷이 구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가령, FRBR 모델에서 개체들을 제1집단, 제2집단, 제3집단으로 구분하고, 다시 제1집단의 개체들을 4개의 계층으로 구조화한 것은 이러한 의지를 구조에 반영한 결과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은 FRBR 모델이 발표되기 이전에도 도서관선진국에서는 이러한 collocating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가령, 관련 자료들을 함께 모으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로서 통일표제와 이름이나 주제에 대한 전거통제 등을 그들은 개발하여 이미 활용해 왔다.⁴⁶⁾ 이처럼 그들은 오랜 역사를 가진 기존 시스템의 기초 위에서 현재의 레코드 구조를 보다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기 위한 advanced tool(즉, FRBR 모델)을 개발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목록체계는 과연 어떠한가?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포괄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

46) 가령, LC의 OPAC에서 "Harry Potter and the chamber of secrets"로 표제 검색을 해보면, 동일한 '통일표제' 아래 관련된 자료가 집중해 있기 때문에 각 자료의 표제(full title)가 상이하더라도 이들 자료들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다. 통일표제에 의해 저작(work)이 구분되고, 그 아래 관련된 자료(edition)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색된 자료에는 단행본, 녹음자료, 악보, CD-ROM, 다른 언어로 번역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의 자료가 어떻게 다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의 작가가 창작한 다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도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들은 '통제된' 저자명을 통해 이 작가의 창작물 모두에 접근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저작의 자료와 특정 저자의 모든 자료를 함께 모아서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통일표제와 기본표목, 전거통제를 중심으로 현재의 목록에도 반영되어 있다.

록 관련 자료를 함께 모아 제시하는 기능도, 그 중에서 원하는 자료를 식별하여 선택할 수 기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목록은 도서관이 무엇을 소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벤토리(inventory)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은 관련된 자료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거나 집중하기 위한 목록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도서관계의 의지와 노력이 그동안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현 단계 우리의 목록체계는 FRBR 모델이 기반하고 있는 서구 도서관선진국의 기존 목록체계와는 매우 다른 상황에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와는 이론적·실무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다른 FRBR 모델에 직면해 있다. 당연히 FRBR 모델을 수용하고자 하는 시도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도 많은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학계와 도서관현장이 협력하여 우리의 목록과 관련된 현황과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FRBR 모델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부족하지만 이 연구가 FRBR 모델에 대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우리 학계와 현장이 무한한 협력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희망을 가져본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